

“영화·드라마 속 장소, 양림동·전남대였네”

조선대 캠퍼스·광주극장
순천·여수·보성·담양 등
지역 곳곳 촬영지로 각광



수지가 주연을 맡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이두나!'를 촬영한 광주 남구 양림동 호랑가시나무 언덕길. 제작진은 촬영을 위해 터널 등을 새롭게 제작·설치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어, 예전부터 양림동에 이런 터널이 있었나?”
7일 광주시 남구 양림동 호랑가시나무 언덕길. 다양한 전사가 열리는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과 레지던시, 게스트하우스가 모여 있는 이 곳을 찾는 이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한다.
산책길 중간에서 만나는 벽돌 느낌의 아치형 터널이 생소하고, 붉은 벽돌의 게스트하우스에는 예전에 없던 철제 대문과 담벼락이 설치돼 ‘익숙한 듯 낯선 풍경’을 연출한다. 호랑가시나무 언덕길 주변이 광주 출신 배우 수지와 양세종이 주연을 맡은 드라마 ‘이두나!’ 촬영장이 되면서 변화된 모습이다.

최근 광주·전남지역 곳곳이 드라마와 영화 촬영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선교사 건물 등 근대문화유산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양림동이다. 지난 7월부터 촬영을 시작한 ‘이두나!’(연출 이정효)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로 내년 전 세계 방영을 앞두고 있다. ‘사랑의 불시착’ 등 화제작을 만든 스튜디오 드래곤이 제작을 맡은 ‘이두나!’는 아이돌 그룹으로 활동 중 돌연 은퇴를 선언한 이두나와 대학생 이원준이 같은 쉐어하우스에 살게 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제작진은 드라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터널을 새롭게 제작했고, 1950년대 건축대 뉴수마 선교사 사택으로 활용되다 지금은 호랑가시나무 게스트하우스로 운영 중인 공간은 주인공 수지의 집으로 변신했다. ‘이두나!’는 양림동의 북촌문화공간 ‘10년후 그라운드’와 곳곳의 골목길에서도 촬영을 진행했다.

양림동은 영화 ‘해어화’, ‘말장’, ‘위험한상견례’, ‘정화홍련’, 드라마 ‘너를 기억해’ 등 많은 작품의 촬영장이 됐고 양림동의 ‘핫 플레이스’인 이이남 스튜디오에서는 지난해 방영한 지창욱 주연의 드라마 ‘도시 남녀의 사랑법’을 촬영하기도 했다.

아름다운 캠퍼스를 자랑하는 전남대와 조선대도 촬영장소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최근 20%에 육박하는 시청률을 보이며 사랑을 받고 있는 jtbc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은 주인공 송중기의 캠퍼스 생활을 전남대 공대, 사회대, 메타세쿼이아어길 등에서 촬영했다. 또 내년 개봉을 앞둔 도경수 주연의 ‘말할 수 없는 비밀’도 촬영을 마쳤다.

조선대에서는 주인공의 캠퍼스 생활을 촬영한 ‘이두나!’를 비롯해 내년 개봉을 앞둔 추창민 감독

jtbc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의 주인공 송중기가 전남대 사회대 정문 계단을 내려오는 장면. <TV 캡처>

독, 조정석·이선균 주연의 ‘행복의 나라’와 황정민·정우성 주연의 ‘서울의 봄’ 촬영이 진행됐다.
올해 개관 87주년을 맞은 광주극장도 영화 촬영 단골장소다. 지금까지 올해 개봉한 영정아·류승룡 주연의 ‘인생은 아름다워’, ‘헬로우 고스트’, ‘극비수사’, ‘살인자의 기억법’, ‘피끓는 청춘’ 등을 찍었다.

전해의 자연 환경을 갖춘 전남지역은 오래전부터 촬영지로 인기를 모아왔다.

(사)전남영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한해에만 현지촬영을 준비한 작품은 영화 93편, 드라마 99편이었다. 이 가운데 실제 촬영을 마친 작품은 57편으로 전남이 영상산업의 중심지로 떠올랐다.

주요 작품은 보성·담양 등에서 촬영해 올해 초까지 방영된 MBC 17부작 드라마 ‘웃소매 붉은 끝동’, 순천에서 촬영한 SBS 16부작 드라마 ‘라켓소년단’, 여수에서 찍고 올해 7월 개봉한 김한민 감독의 영화 ‘노랑’ 등이다.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정현기 대표는 “근대

적 풍경을 담고 있는 공간이 많은 양림동은 시대극을 비롯해 다양한 작품의 제작진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다”며 “이번에 촬영한 ‘이두나’는 아마

도 양림동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정부, 철강 석유화학 업무개시명령...즉시 집행

윤석열 대통령은 8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 철강과 석유화학 운송 사업자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에서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보름째인 철강·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

의를 열어 추가 업무개시명령 안전을 심의·의결했다. 시멘트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의결한 지난 국무회의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바 있다.

한 총리는 “물류 중단 사태가 심각하다”며 “특히 철강·석유화학 제품 출하 차질은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산업으로 확대돼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 자발적 복귀를 더 기다리기에 상황이 매우 긴급하고 엄중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멘트 발동 당시와 마찬가지로 철강·석유화학 업종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집행에 바로 돌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수능, 수학 어려웠다 대입 주요 변수될 듯

통합 수능 2년 차인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수능)에서 수학 영역의 표준점수 최고점이 국어보다 10점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어가 지난해보다 쉬웠으나 수학은 지난해와 비슷하게 어려웠다는 의미다.

<관련 기사 7면>

8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23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에 따르면 표준점수 최고점의 경우 국어 영역이 134점, 수학 영역은 145점이었다.

표준점수는 수험생의 원점수가 평균 성적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 보여주는 점수다. 통상 시험이 어려워 평균이 떨어지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상승하고, 시험이 쉬워 평균이 올라가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하락한다. 지난해 치러진 2022학년도 수능에선 표준점수 최고점이 국어 149점, 수학 147점이었었다.

국어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15점 하락하고, 수학은 2점 떨어진 데 그친 것이다. 이에 따라 수능이 주요 전형 요소인 정시모집에서 상위권에는 수학의 중요성이 지난해와 견주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표준점수 최고점 인원을 보면 국어 영역에서는 28명에서 37명으로 늘었다. 수학의 경우 2702명에서 934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1등급 커트라인과 표준점수 최고점 차이는 국어가 8점에 불과하지만, 수학은 12점 차이가 발생했다.

절대평가인 영어 영역에서 1등급 비율은 7.83%로 전년(6.25%)보다 확대됐다.

다만 2등급은 21.64%에서 18.67%, 3등급은 25.16%에서 21.75%로 축소되는 등 중상위권엔 쉽지 않았던 시험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번 수능에서는 전 영역 만점자가 3명 나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5년 만에 재가동 한빛원전 4호기 안전인가 ▶6면

복스 - ‘공간, 시대를 기억하다’ ▶14·15면

창과 방패 대결 - 월드컵 8강전 시작된다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Sulwhasoo

설화수 자음생크림

6,000배* 고농축 진세노믹스™의 힘으로 탄력의 시간을 무한하게

탄력이 떨어지고 있다면, 복잡한 피부 속을 바로 잡으세요
강력한 인삼에너지 6,000배* 이상 고농축한 진세노믹스™,
피부 한 층 한 층 채우고, 세우고, 당기고**, 탄력을 끝까지 붙잡아줍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탄탄해진 피부를 경험하세요

NEW

Sulwhasoo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 EX
CREME REGENERANTE

*인삼 인삼 사포닌 추출량 비교 **피부탄력도 +12.3%, 탄력 +10.2%, 주름 -25.9% 인체시험 결과 (49세 여성) (대상: 30~60세, 31명) 시험기간: 2021년 03월 03일~2021년 05월 03일